

광주 학교운동장 19곳 유해물질 검출

우레탄 17·인조잔디 2곳...교육청 "마사토 교체"

2016년 53개교 철거...주민-동호회 불편 불가피

중금속 우레탄 파충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또다시 광주지역 일선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 조치됐다.

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중·고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탄성포장재) 운동장 17곳과 인조잔디 운동장 2곳 등 모두 1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운동장이 즉각 폐쇄 조치됐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교육청 친환경 경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정기검사로, 3년 전 전수조사 당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검사대상이 아니었던 운동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검출된 한 운동장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겼다.

이번 검사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용가 크롬 등 중금속 4종과 프탈레이트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프탈레이트는 KS기준에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돼 있지만 2018년 검사 당시에는 대상항목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6년에는 광주에서 초·중 22, 중학교 12, 고교 17, 특수학교 2개교 등 53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광산구 J고와 서구 J고는 기준치를 각각 2배, 3배 초과했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긴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라는 라인이 설치됐고, 플래카드나 안내판을 통해서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걷어낸 후 친환경 마사토(흙)를 깔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운동장이 마사토로 전면 교체되면 광주지역 학교는 모두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되게 돼 유해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레탄 트랙 철거나 마사토 교체에는 학교당 최고 1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을 철거한 뒤 드러나게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곧바로 재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난으로 철거만 우선 이뤄질 경우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걷거나 산책, 조깅을 즐기던 인근 주민들의 불편소리로 불거져 온 것으로 보인다.

또 마사토로 교체한 후 흙먼지 날림이나 비온 후 질퍽거림 등도 예상돼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서 발생 사고 국토부에 즉시 알려야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발생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받는다.

지금까지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사고를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한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여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 구현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도 더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축 위기에 구출된 동물들 1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도축 위기에 구출된 동물들을 보호소로 옮기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4곳 추가 고발

광주시교육청이 회계자료 거부 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4곳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공개 등을 거부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중 3곳은 올 상반기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된 11곳에 포함된 유치원들로, 이번에 추가 혐의가 고발했다.

모 유치원은 학부모 경비를 설립자도, 원장도 아닌 제3자인 설립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나, 해당 통장과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

고, 또 다른 유치원은 '회계 경비 등을 관리해온 외부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유치원과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을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30개 유치원을 집중 감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또한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리 금액은 2억여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19개 유치원에 대한 세부조사를 국세청에 의

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유치원의 상당수는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위법하다' '학교운영비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유치원은 국민신문고에 '감사 담당자를 처벌하라'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한해 3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강도 등 혐의 추가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 등)를 받아 구속된 30대 강·절도 행각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PC방·원룸 등지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절도·업무상 횡령)로 김모(3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4시37분께 광주 광산구 한 성인PC방에 침입, 종업원이 지니고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CCTV영상 기록장비를 때리는 등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PC방·원룸에서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음식 배달용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면유도제가 든 음료를 종업원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잠든 사이를 틈타 종업원의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직후에는 가게 내 CCTV 영상기록장치를 통째로 떼서 가져가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물건 배달용 오토바이를 업주에게 반납하지 않고 횡령, 이동수단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광산경찰은 김씨가 지난 5월24일에도 광산구 신창동 한 원룸에 창문을 열고 침입, 현금 3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추가로 3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점을 확인했다.

앞서 서부경찰은 지난달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김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또 광산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추가로 입건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형택 기자

직위해제 경찰관 또 소란 피워 입건

만취상태서 잇단 행패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관공서에서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모 지구대 소속 A(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불협화란 지구대에서도 소동을 부린 혐의다.

A경위는 근무를 마치고 폭음한 뒤 식당·병원·PC방 등지에서 행패를 자주 부려 지난달 직위해제됐다.

A경위는 가족 문제를 놓고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직원 위협 강도짓 5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병원 직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40분 광주 북구 모 병원 원무과에서 검은 봉지로 둘러 감은 빗을 들고 직원을 위협한 뒤 1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박씨는 생활비와 유희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한 시비 폭력 휘두른 남성들 입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오토바이를 몰다가 시비가 붙은 10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5)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 B(18)씨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배달원인 A씨는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날 뻔한 일을 놓고 시비가 붙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부경찰은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C(69)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